다른 믿음, 다른 율법

(레26:1~46)

1.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5.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9.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다른 믿음, 다른 율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다른 믿음, 다른 율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본의 아니게 신앙생활의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자식이 공부를 잘 하고 못 하고, 취직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세상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신앙에서 원래 정해진 은혜의 손해만 없으면 행복하게 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본래 신앙이 정해준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만 하면 세상일은 걱정할 것이 없고, 신앙 때문에 행복하고 신앙 때문에 만족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관광하듯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은혜가 자꾸 손상이 되고 상실이 되고 훼손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 행하고 있고 무엇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오해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고, 우리 삶이 가나안 복지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앗아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인터넷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보통의 법과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신이 당신의 선민들에게 준 규범'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을 기독교의 전유물인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큰 오해이고 이것과 연관 되어서 항상 같이 신약성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믿음도 우리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기독교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믿음과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70억 인구는 전 세계 지구표면에 흩어져서 살고 있으면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고, 지키려 하고 있고, 지키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는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과 다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믿는 것도 큰 오해이고 이 오해로부터 엄청난 은혜의 상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일상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시장에서 장사하고 집에서 자식 키우고 살림하는데 다 율법을 따라갑니다. 종교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들이 구약성경 전반에 걸친 오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오해의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의 출처가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형식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으로 시작해서 4-13절까지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명을 준행하면' 이러이러한 복된 내용들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복된 내용을 잘 분류해봅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규례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아왔던 모든 규정들을 말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다 율법서라고 하는데 역사 이야기도 있고 예언적인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데, 포괄적으로 규례와 계명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부릅니다. 규례와 계명과 율법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율법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 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하면 주어지는 복들을 분류해보니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이 보전되고, 기본적인 안정과 평화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 다산, 부흥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패턴의 말씀은 앞으로 구약성경의 말씀을 접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상황까지 영성이 고양되어 있었지만 안정은커녕 핍박이 주어지고, 스데반 집사님 경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축복의 개념부터가 뒤틀려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차근차근 따져봅니다.
먼저 3절의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13절까지 분류한 세 종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14-15절부터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반대로 주어질 심판과 형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계명과 규례를 포괄적으로 율법으로 봅니다. 율법 준수와 축복약속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선민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남 왕국과 북 왕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민족에게 침입을 받아 멸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율법과 규례와 계명은 지금은 문자적으로 없어진 것들이 많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어서 마5: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율법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갖는 선입관은 지키기 어렵고 부담스럽고 거북하며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율법을 마치 구원의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70억 전 세계 인류는 오늘도 율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부담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예외 없이 율법을 안 지키고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율법과 다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지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이란 '신이 준 규범'이라고 했습니다. 사회가 만든 법도 법인데 굳이 율법을 구분하자면 신이 준 규범입니다. 실천적인 관계의 차원에서 어떻게 신과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 신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심으로 가능합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첫 번째 사랑의 자리이고 첫 번째 궁극적 관심의 자리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많은 것들 중에 어느 하나를 집어넣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마음에 이름을 집어넣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를 내가 손으로 쥐기 위해 다가갈 때에, 그 실제 존재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라는

길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마음의 지성소에 담아 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이름을 담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내가 손으로 쥐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존재에 이르는 길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한 두 종류가 아닙니다. 안 지키는 사람이 없고,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율법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내가 쥐고 싶은 존재를 향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은 마음의 지성소에 성공이 들어와 있으므로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자녀를 하버드 대학생으로 기르기"라는 책이 있다면 마음의 지성소에 하버드 대학생인 내 자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생으로 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두껍게 제시되는 율법을 지켜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5년 만에 10억 만들기"는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10억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도달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시하는데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오면 신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되는 것이고, 자식이 들어오면 그 자식이 나의 신이 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성공이 신이 됩니다. 그 신의 자리에 들어온 그것들이 내게 도달하려면 이러한 법들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똑같이 나에게 이르기 위해서 나를 갖고 나로 배부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자리인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온 것들이 신이 되어서, 그 이름(신)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야할 길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왜 자녀가 하버드 대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집어넣습니까? 내 자식이 하버드 대학생이 되기만 하면 틀림없이 나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여기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10억 만들기에 도달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억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분명히 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10억이 제시하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선민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마주 대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시하시는데 선민들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성공과 형통과 풍요와 다산의 이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율법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서로 상반되거나 대적하는 관계에 있거나

라이벌의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단계는 마음의 지성소에 무언가의 이름을 담는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믿음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인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것의 이름을 담게 되면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율법을 원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 된다고 믿어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았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그분에게로 도달하는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쁜 길이 어떤 것인가를 나 스스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안 지켜지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규정과 규범들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신이 들어와 있고 다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막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고 노동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지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회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안식은 그 노동이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획득하기 위한 노동이 죽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이 지구표면에서 티끌만한 정도 밖에 안 되는 ‘성막’이라는 단 하나의 지점에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성막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과 성막 경외의 말씀은 십자가 생활화를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십자가 생활화는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게 되는데 이 길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제시한 모든 율법은 결과적으로 다 따라올 수 있게 되고 믿음의 단계와 율법의 단계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왜 그렇게 믿음과 율법을 대질시키고 라이벌처럼 이야기하였느냐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을 위시해서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말씀의 오늘 본문 같은 말씀 속에서 계명을 지키면 먹을거리 걱정이 없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평화가 보장되며, 풍요와 다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풍요와 다산, 이 지상에서의 삶의 평화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관심을 마음의 지성소에 집어넣은 다음에 성경을 보니 규례를 잘 지키면 그것을 준다고 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세상의 가치들을 얻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이 된다고 믿어서 그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의 지성소에 여호와 하나님인 나의 이름을 모셔 들이고 그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에게로 가고 싶어서 열망하면 이러한 복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러한 복을 마음의 지성소에 집어넣고 성경을 읽다보니 그 복을 얻는 길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은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돈을 마음의 지성소에 넣은 사람에게는 실제로 돈을 쥐는 것이 복입니다. 자식의 성공이라는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넣은 사람은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복을 마음의 지성소에 집어넣고 성경에 계명을 지키면 주신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을 정도로 네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서 네가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있는 나에게로 가고 싶어 한다면 세상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장애도 없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멋대로 뒤집어서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채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에 봉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복에 이르는 길로 삼았고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복을 담았고 복이 신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인 상태가 구원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가 현실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향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이르고 싶은 사랑의 표현이 율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믿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의 표현이 율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오해한 것에 대해서 율법과 믿음을 대질시켰을 뿐이지, 믿음과 율법은 그것이 역사하게 되는 자리가 다른 것입니다. 농구 선수와 테니스 선수가 부딪힐 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자리는 마음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율법의 자리는 마음의 지성소에서 결정된 것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지성소에 무언가를 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것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에 도달하는 길을 모색하며 사는 것이 율법입니다. 유독 하나님의 율법만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10억 만들기' 같은 책의 제목만 봐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10억이라는 돈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생 만들기' 같은 책의 목차를 보면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을 하버드 대학생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하며 그 엄청난 율법들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평생 돈, 돈 하면서 삽니다. 그 돈, 돈 하는 열심과 열정과 관심의 100분의 1만 있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므로 불필요해 보이고 부담스럽고 억압하는 것 같은데 믿음에서부터 어긋나버린 오해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없고 율법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시한 율법보다 더 어려운 율법들은 다 즐거워하며 스스로 잡아당겨서 이루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만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 만족과 참 기쁨의 이유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지성소인 신의 자리에 들어온 돈, 자녀의 성공, 형통, 풍요, 건강, 장수 같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동원하는 망발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선민입니다. 다른 믿음, 다른 율법으로 세상은 충만해 있는데 선민들이 다른 모든 믿음과 다른 모든 율법은 즐겨하면서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는 유독 부담을 느끼는 이 현실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극복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영적 오해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막중한 손실만 없어도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홍수가 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내 마음의 지성소에 이름을 들이미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에 대해 죽게 하시고, 오직 주님 따라 부활하고 승천함으로서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는 선민다운 선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